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인선*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s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Anxiety on Self-esteem before the First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n-Sun Kim*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요약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첫 임상실습 전 3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능력과 정적 상관관계($r=.564, p<.001$), 대인관계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r=-.590, p<.001$)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도 부적 상관관계($r=-.515, p<.001$)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관계 불안($\beta=-.41$), 의사소통능력($\beta=.35$)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고 대인관계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학년별, 단계별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대인관계를 넓히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anxiety on self-esteem before the first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third-year nursing students who had yet to begin their clinical practice from May 15 to May 20, 202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26.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self-esteem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ability($r=.564$)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anxiety($r=-.590$) 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anxiety($r=-.515$). The impact on self-esteem was in the order of interpersonal anxiety ($\beta=-.41$) and communication ability($\beta=.35$). In conclusion,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 lower the interpersonal anxiety, the more it affects self-esteem.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implement tailored programs that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and facilitate interpersonal interactions while reducing anxiety for nursing students at different school years and stage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ty,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In-Sun Kim(thinktop76@naver.com)

Received November 15, 2023

Accepted December 20, 2023

Revised December 1, 2023

Published December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의 핵심 역량으로 대학 및 학과는 간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졸업 시점에 치료적 의사소통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1]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다양한 간호상황을 경험하지만 부족한 의사소통능력으로 임상실습 부적응, 스트레스, 의욕 상실을 경험하므로 [2] 임상실습이 필수적인 간호대학생에게 대상자와 간호사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것은 대인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향후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3].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환자들 사이에서 대화나 실습현장 간호사와의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기술 미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4] 이는 대인관계 불안, 학습동기 저하, 임상수행능력 저하를 초래하며 [5]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6]. 이로 인하여 임상실습 현장에서 실습에 대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전공 만족에 대해 회의적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 및 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련 변수를 파악하고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7], 첫 임상실습 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는 일반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 대인관계 요소는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개방, 이해,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다 [8]. 선행연구 [9]의 연구에 따르면 신입생의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 대학생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한 인성 및 대인관계 교육이 필요하며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필수요소인 대인관계능력은 대인관계 불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10].

대인관계 불안은 개인의 내적 특성 중 하나로 타인에게 노출되는 현실이나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적 평가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불안이다 [11]. 이것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고 이

로 인해 과음, 약물 남용, 우울 및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12-13]. 따라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대인관계 불안은 학과 및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불안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기술은 간호교육을 위한 이론 교과와 의사소통 이론 학습 및 임상실습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하며 [16], 간호사는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구조적이고 일관된 대인관계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17].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고 당당한 과제나 상황을 잘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 [18]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18],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대인관계에 부족한 특성을 보인다 [1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며, 자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도 다양해지면서 정보기술 발전 및 발달로 인하여 의료 정보 획득의 기회가 많아지고 [20]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형성은 반드시 중요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21].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대상자와의 만남 기회가 많으므로 임상실습 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불안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불안을 연구한 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포괄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2]. 또한 간호학생의 자의식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23]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 불안은 더 낮게 나타났다. Han [24]의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상관관계, 임상수행 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COVID-19 상황이 나아지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연구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기본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불안 두 변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으나 실습에 대한 기대감과 임상현장이라는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동반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실습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에 대해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대인관계를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불안,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 차이를 파악한다.
- 3)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불안,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I 광역시 I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

학중인 첫 임상실습 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15주 더블링 수업을 바로 직전 끝낸 2023년 5월 15일~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글폼을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표본 크기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8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68명으로 나타났다. 총 7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응답 누락이나 오기가 있는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실제 대상자는 76명으로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Hur [25]가 7가지 개념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한 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를 이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 [25]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2$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였다.

2.3.2 대인관계 불안

Leary [22]의 대인관계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를 Kim [2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대한 1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였다.

2.3.3 자아존중감

Rosenberg [18]이 개발하고 Jeon [28]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긍정적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 [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였다.

2.4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5월 15일~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구글 설문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링크주소를 탑재하고 설명문까지 게시하였다. 해당 자료는 IRB 승인 절차는 거치지 못했으나 연구자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익명으로 처리 후 개인별로 코드화하여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 분

석과 연구가 종료된 후에 폐기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Table 1.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ty,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6)

Characteristics	Category	n(%)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ty			Self-esteem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19(25)	4.00±0.50	2.06	.040	2.97±0.71	-1.101	.280	3.82±0.65	0.77	.450
	Female	57(75)	3.71±0.54			3.14±0.53			3.68±0.79		
Age	20-25	61(80.3)	3.80±0.56	.74	.477	3.12±0.62	.832	.439	3.66±0.79	1.04	.358
	26-35	10(13.2)	3.81±0.36			2.88±0.23			4.01±0.55		
	36 over	5(6.6)	3.49±0.64			3.23±0.57			3.86±0.57		
Religion	Christian	16(21.1)	3.81±0.57	0.51	.730	3.16±0.58	0.13	.970	3.86±0.72	0.72	.580
	Buddhism	4(5.3)	3.83±0.46			3.23±0.67			3.18±1.09		
	Catholic	8(10.5)	3.53±0.49			3.09±0.38			3.65±0.84		
	No	46(60.5)	3.80±0.55			3.06±0.62			3.73±0.73		
	etc.	2(2.6)	3.93±0.57			3.10±0.71			3.50±0.71		
Personality	Introvert	51(67.1)	3.70±0.57	-2.15	.040	3.30±0.52	5.06	.000	3.63±0.79	-1.61	.110
	Extrovert	25(32.9)	3.95±0.44			2.68±0.46			3.90±0.64		
Communication style	Consideration_empathy ^b	44(57.9)	3.90±0.50	8.31	.000	3.03 ±0.53	6.25	.000	3.79±0.78	2.68	.050
	Nervous_passive ^a	14(18.4)	3.54±0.43			3.55±0.52			3.60±0.41		
	Sensitive_distracted ^a	6(7.9)	3.00±0.60			3.30±0.82			2.98±0.98		
	Facilitation_initiative ^b	12(15.8)	3.98±0.35			2.70±0.31			3.94±0.68		
Adaptability to unfamiliar environment	Very maladaptive	1(1.3)	2.20	7.25	.000	4.80	5.21	.000	1.80	3.80	.001
	a little	4(5.3)	3.17±0.52			3.52±0.18			3.10±0.95		
	average	35(46.1)	3.66±0.41			3.22±0.55			3.73±0.65		
	slightly	26(5.3)	4.01±0.53			2.87±0.46			3.97±0.72		
Motivation for choosing department	very well	10(13.2)	3.99±0.47	2.25	.070	2.91±0.66	2.21	.080	3.46±0.74	1.53	.200
	In my own thought	46(60.5)	3.89±0.47			3.01±0.59			3.83±0.66		
	according to grade	4(5.3)	3.70±0.64			3.32±0.51			3.30±0.48		
	Salary is high	2(2.6)	3.43±0.05			4.03±0.14			3.05±0.78		
Grade	advice from others	11(14.5)	3.80±0.62	2.92	.060	2.99±0.48	1.26	.290	3.86±0.80	2.42	.100
	employment rate is high	13(17.1)	3.43±0.61			3.27±0.55			3.44±0.99		
	Top(4.0)	15(19.7)	3.65±0.47			3.27±0.53			3.76±0.74		
Major satisfaction	Middle(3.5-3.9)	31(40.8)	3.95±0.56	3.94	.010	2.98±0.46	4.98	.000	3.91±0.71	1.85	.150
	Low(2.5-3.4)	30(39.5)	3.66±0.51			3.13±0.70			3.50±0.76		
	very dissatisfaction ^b	0							2.70±1.27		
	dissatisfaction ^a	2(2.6)	2.79±0.84			4.43±0.52			3.51±0.92		
	moderate ^b	13(17.1)	3.64±0.69			3.27±0.51			3.81±0.67		
Confidence of Skill	good ^b	40(52.6)	3.77±0.47	2.97	.030	3.01±0.46	2.15	.080	3.77±0.72	1.27	.290
	very good ^b	21(27.6)	3.98±0.42			3.03±0.68			3.80±0.67		
	very unsure	8(10.5)	3.85±0.83			3.03±0.98			3.60±1.19		
	not confident	12(15.8)	3.35±0.43			3.38 ±0.54			3.48±0.69		
anxiety or concern during clinical practice	moderate	40(52.6)	3.85±0.49	0.66	.580	3.08 ±0.48	0.13	.940	3.76±0.67	1.10	.360
	confident	13(17.1)	3.79±0.47			3.10±0.51			3.68±0.74		
	very confident	3(3.9)	4.27±0.07			2.33±0.46			4.53±0.47		
	Unfamiliar environment	13(17.1)	3.61±0.77			3.08±0.77			3.82±1.06		
anxiety or concern during clinical practice	Lack of clinical knowledge	32(42.1)	3.78±0.45	0.66	.580	3.12±0.49	0.13	.940	3.60±0.64	1.10	.360
	Lack of clinical Performance	26(34.2)	3.86±0.54			3.11±0.60			3.88±0.65		
	Commute time to clinic	5(6.6)	3.81±0.36			2.95±0.70			3.38±1.00		

*Scheffe's test

- 불안,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시행하였다.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76명으로 남자 19명(25%), 여자 57명(75%)이고 종교는 무교(60.5%)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성격은 내향적이 51명(67.1%)으로, 본인의 의사소통능력은 배려_공감하는 스타일이 44명(57.9%)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환경 적응력에서는 보통이 35명(46.1%)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 동기로는 본인의 의지가 46명(60.5%), 학과성적은 중위권(3.5~3.9)이 31명(40.8%), 전공 만족도에서는 약간 만족이 40명(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현장 실습을 앞두고 있어 핵심간호술 자신감은 보통이 40명(52.6%), 첫 임상실습 시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에서는 임상 지식부족이 32명(42.0%)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3.2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8 ± 0.54점이었고 대인관계 불안은 3.10 ± 0.58점, 자아존중감은 3.72 ± 0.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

Variable	Mean±SD	range	skewness	kurtosis
Communication ability	3.78±0.54	1-5	-.171	.194
Interpersonal anxiety	3.10±0.58	1-5	.344	.208
Self-esteem	3.72±0.75	1-5	-.424	-.114

3.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양적 상관관계($r=.564, p<.001$), 대인관계 불안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r=-.590, p<.001$)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불안은 부적 상관관계($r=-.515, p<.001$)를 나타내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ty, self-esteem

Variable	Communica- 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ty	Self- esteem
	r(ρ)	r(ρ)	r(ρ)
Communication ability	1		
Interpersonal anxiety	-.515** .000	1	
Self-esteem	.564** .000	-.590** .000	1

** $p<.001$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스타일($F=8.31, p<.001$), 낮은 환경 적응력($F=7.25, p<.001$),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대인관계 불안과의 차이에서는 성격($t=5.06, p<.001$), 의사소통 스타일($F=6.25, p<.001$), 낮은 환경 적응력($F=5.21, p<.001$), 전공만족도($F=4.98, p<.001$)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관한 일반적 특성과는 모든 변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3.5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8.74, p<.001$), 42.5% 설명력을 나타냈다. Durbin-Waston 지수는 1.755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고 분산팽창요인(VIF)지수는 1.361로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첫 임상실습 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불안($\beta=-.408, p<.001$), 의사소통능력($\beta=.354, p<.001$)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인관계 불안이

낮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effect of self-esteem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anxiety (N=76)

Variable	B	S.E	(β)	t	F	p
(Constant)	3.483	.830		4.20	28.74	
Communication ability	.494	.143	.354	3.47		.000
Interpersonal anxiety	-.528	.132	-.408	-4.0		.000

adjR²= .425, Durbin-Waston's d=1.775, VIF :1.36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8±0.54점이었고, 대인관계 불안은 3.10±0.58점, 자아존중감은 3.72±0.75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연구[9, 29] 결과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중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의 집중적인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므로 교과과정에서 미리 습득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30-31]. 그러나 대부분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교과목으로 운영하여 강의식 교수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사소통능력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32].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했을 때 임상수행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선행연구[33]의 연구에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중 대인관계, 의사소통임이 확인되었고 해결중심 의사소통훈련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과 대인관계 효과를 규명했듯이[34] 기존 교과과정에서의 적용뿐만 아니라 4년간의 교육과정을 신입생부터 의사소통 스타일

을 파악하고 학년별로 접근하여 단계별 의사소통훈련 및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3, 4학년은 임상실습 전 임상 상황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시나리오 기반 유사 상황을 사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론 지식적 해결보다는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학습모델개발도 필요하며, 의사소통능력 및 자아존중감이 셸프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스타일,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사소통 스타일이 배려_공감적인 스타일인 경우와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는 보통인 경우가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간호상황에서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자신이 스스로 느껴질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불안은 5점 만점에 3.10±0.58로 세 변수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연구들보다는 높게 나타났[16, 21].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인관계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불안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21],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보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이론과 실무의 격차, 자신감 부족, 낯선 환경과 다양한 대상자와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낌으로써 대인관계 불안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불안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성격은 내향적이, 의사소통 스타일은 배려_공감스타일, 낯선 환경 적응력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약간 만족함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16]의 연구결과에서는 낯선 환경 적응력에 적응 못함, 핵심간호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첫 임상실습 시 가장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임상수행능력 부족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대인관계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이 2학년과 임상실습을 직전에 둔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이 다르므로, 대인관계 확장과 불안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년별로 접근하여 단계별 의사소통훈련과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2 ± 0.75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16, 29]. 선행연구[35]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간호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자 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며 간호학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정신건강 및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한 결과 정신건강, 자존감, 연령이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인이 간호학을 선택한 이유,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전공 만족도와 핵심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16]와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높은 자존감 역량은 예비 간호인력으로써 간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힘을 갖추게 될 것으로[36] 이해하고 있으며 첫 임상실습을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에 접목한다면 그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 경험이 있는 선배와의 관계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이나 핵심간호술 향상프로그램 등을 적용하여 운영한다면 임상실습 전 3학년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2.5%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결론적으로 대인관계 불안이 낮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존감이 대인관계 불안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16]를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COVID-19 팬데믹 현상이 주춤하면서 임상실습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첫 임상실습을 대비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은 낮아지며, 이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은 2012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12가지 핵심역량에 포함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의 치료

적 의사소통을 함양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으나 낯선 임상현장 환경, 임상실습 중에 나타나는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불안 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고 [22], 대인불안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를 본 연구[21]에서도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37]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에서 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공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에 치료적 언어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일반적 의사소통이 아닌 쌍방향의 공감 소통훈련도 필요하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불안을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연구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전 3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과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들이 간호학과 신입생부터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고 학년별로 접근하여 단계별 의사소통훈련 및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한다면 대인관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러한 역량 프로그램들이 훈련이 된다면 자아존중감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 전 3학년만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전체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

력과 대인관계 불안의 관계성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입생부터 졸업 때까지 단계별 의사소통능력 코칭 프로그램이나, 학생 상담센터 등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집단기반으로 의사소통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인관계를 넓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전략을 병행하여 간호교육 과정에서 운영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요 개념인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나 임상실습 뿐만 아니라 4년의 교육과정 안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와 이를 향상할 수 있는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COVID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인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불안에 대한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대인관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절대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P. Park & Y. H. Jung. (2018).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Communication Style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9), 696-709. DOI : 10.5392/JKCA.2018.18.09.696
- [2] H. S. Jung & G. R.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1647.
- [3] M. J. Park. (2013). Correlations of communication skill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Basic Science Research Institute*, 21(1), 27-35.
- [4] J. I. Bai. (1999). A study on the stress and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2), 411-423.
- [5] M. O. Kim.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 [6] S. Y. Yang.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9), 286-296. DOI : 10.5392/JKCA2016.1609.286
- [7] M. J. You & H. S. Han.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7(3), 298-305. DOI : 10.5977/jkasne.2021.27.3.298
- [8] Y. J. Oh. (2008).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9]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DOI : 10.5762/KAIS.2016.17.12.634
- [10] J. H. Park & J. H. Park.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college adjustment,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1), 185-194. DOI : 10.7465/jkdi.2017.28.1.185
- [11] Leary MR.(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1), 66-75.
- [12] N. Clayton, F. Nichole, W. Briana A, F. Patricia S. Michael & F. Deborah. (2007). Social anxiety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orms and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8(1), 91-96.
- [13] S. J. Park & D. E. Bae. (2015). Differences of social anxiety and stress coping style by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305-315. DOI : 10.5392/JKCA.2015.15.10.305
- [14] H. J. Jang & G. Y. Jung. (2018). Stress in before

- clinical practice, anxiety, ego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5(1), 131-140.
- [15] I. S. Hyeon. (2023).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Anxiety of Nursing Students before First Clinical Practice.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20, 15-26.
- [16] E. Bramhall. (2004). Effect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practice. *Nursing Standard*, 53-59.
- [17] Y. S. Lee.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s communication and Outpatient's Trust-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8] R. R. Rosenberg and M. Rosenberg.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4, 1978.
- [19] S. H. Lee & S. E. Chung. (2004). A Study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5(1), 133-151
- [20] J. H Park & S. K. Chu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21(4), 517-526.
- [21] S. J. Lim & E. Y. Park. (2013).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Satir Communication 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151-162.
- [22] S. K. Hwang & Y. J. Lee. (2015).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21(4), 517-526.
- [23] J. W. Park & M. S. Choi. (2009).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3), 351-360.
- [24] S. H. Han.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0), 217-227.
- [25]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12(47), 380-408.
- [26] M. R. Leary.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1), 66-75.
- [27] N. J. Kim.(1995).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1), 73-81.
- [28] B. J. Jeon. (1974). Self- 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Journal of Yonsei* 109-129.
- [29] W, J. Jung, E. B. Park, R. H. Kim, W. J. Lee & J. S. LIM. (2020).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steem on Self-Leadership.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4(2), 49-57.
- [30] Y. J. Choi & E. J. Song.(2014). Effects of teaching communication skills using a video clip on a smartphone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9(2), 90-95. DOI : 10.1016/j.apnu.2014.11.003
- [31] M. S. Yoo, J. H. Park, & S. R. Lee. (2010)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using video 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learning motiva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0(6), 863-871. DOI : 10.4040/jkan.2010.40.6.863
- [32] H. M. Son, H. S. Kim, M. H. Koh & S. J. Yu. (2011).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of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424-432
- [33] E. S. Shin. (2022).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ho took blended learning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10). 392-403.
- [34] H. M. Kim.(2009).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4), 399-408.

- [35] L. Tapa, F. Soleymani, N. Mohamadi, E. Sadeghian & R. Amini.(2022).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at a Medical Sciences University in Hamadan, Iran. *Africa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24(2), 1-15.
- [36] Y. M. Kwon & E. J. Yeun. (2007).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 [37] E. H. Jo, H. S. Kim & S. J. Hwang. (2020).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290-298.

김인선(In-Sun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가천대학교 간호학 (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5년 4월~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학, 경영, 마케팅
- E-Mail : thinktop76@naver.com